월요광장

존중 받는 아이로

이 승 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5월 가정의 달.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욱 아프고 슬프다. 진도 앞 춥고도 어두운 바다 속에 갇힌 무고한 생명들과 그 생명을 구하고자 구조원들이 물속에 뛰어드는 세월호 참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조 활동에 나선 민간 잠수사마저 목숨을 잃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가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사건은 인성(人性)이 사라진 한국사회가 낳은 인재(人災)이다.

사고 이후 드러난 것처럼 어른들이 책임을 다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법과 규정을 지켰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다.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무고한 희생 앞에 그저 미안하고 죄를 지은 심정일 수밖에 없다.

이 학생들의 영혼은 양심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어른들의 의식을 밝혀준 빛이자, 희망이 되어준 거룩한 영혼들이다. 이들은 인성을 잃어버린 국민들을 깨워준 순교자이며 어린 성자들이다. 다시 한 번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빈다.

우리는 어린 영혼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세월호가 남긴 이 뼈아픈 교훈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보고 새겨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의 해결 방향은 인성(人性)회복에서 시작해야 한다.

인성이 회복된 국민은 타인과 제도화된 권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스스로 건강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는 부모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른 말씀 잘 듣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라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배우고 따른 학생들은 희생이 됐다. 이제 이렇게 교육한들 아이들이 얼마나 받아들일까.

물론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이 빚은 참사이니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와는 다르게 우리 교육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교육은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 창의력을 기르는 데 소홀히 해왔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이미 검증된 지식을 익히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번역 능력, 암기력이 중요했다. 이런 시기에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즉 강의를 잘 듣고 적어 그대로 외워 쓰면 된다. 이런 교육은 지식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하여,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교육이었다.

외우기만 하는 교육은 머리에 든 지식이 많을지는 몰라도 상황 적응력이나 문제 해결력은 떨어진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기억력이나 암기력 이상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이 중요해진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의 흐름이 가속화할수록 지식과 체험, 직관력을 총동원한 통합적인 사고력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는 과거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점점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어른 말씀 잘 들으라."고 계속 가르칠 것인가. 이번 참사는 이런 '생각이 필요 없는 교육'을 경고한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번에 부모들이 먼저 '내 아이의 스승' 되기를 바란다. 부모가 먼저 아이의 스승이 되어 아이가 부모를 따라 배우도록 부모가 바뀌어야 한다.

아이 교육은 학원이나 학교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인생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아이를 뇌의 주인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그 잠재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이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여 아이가 생각하는 힘을 키우도록 한다.

아울러 아이의 꿈과 상상력을 존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꿈꾸고 상상하게 해야 한다. 부모의 기준에 아이를 맞추려고 하지 말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부터 바뀌자.

법조칼럼

재판 불신 그리고 해법 찾기

이 대 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주말에 읽었던 프란츠 카프카의 미완성 장편소설인 '소송'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유능한 은행원인 K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K는 자신의 죄목이 무엇인지 묻지만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화가 난 K는 법원을 찾아가 예심판사와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 그곳에서 부패하고 무기력한 직원들을 보며 K는 더욱 법원을 믿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소송은 죄가 명백하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고 K의 불신과 적대적인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킨다. 다급해진 K는 변호사와 법원직원 등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들은 판사의 환심을 사거나 시간을 끄는 방법 따위만을 알려 줄 뿐 진정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결국 K는 무죄입증에 실패하고 사형집행인이 그를 찾아온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K는 자신의 죄가 과연 무엇인지,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한 반대 변론은 없는지를 열심히 생각하지만, 결국은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개 같은 상황'이라고 욕을 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자신이 '도대체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강하게 따져 묻는 피고인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그들은 주인공 K처럼 화가 나 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들과 한통속이라거나 자신들의 말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법정에 세웠다는 것이다. 불신은 이제 법원을 향한다. 어차피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고 되묻는 사람들, 가벼운 질문조차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고 싶은 말만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 그 중에는 과거에 소송을 했던 경험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이들도 있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의 비난도 듣게 된다.

안타깝게도 재판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불신은 뿌리가 깊다. 과거에는 법조인이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소수의 엘리트들이 사법권을 독점한다는 인상도 강했다. 사람들은 재판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도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법조브로커',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들이 생겨났다.

우리 법원은 재판불신에 대한 대책으로 오래전부터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해 왔다. 모든 증거는 공개된 법정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증명력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더 이상 법관이 집무실에서 외롭게 사건기록을 뒤져가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법정에서 공개됨으로써, 어떠한 자료를 기초로 판결이 선고될지 예측할 수 있게 되고 각종 청탁이나 관행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줄어들고 있다.

소설 속에서 K가 실제로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K가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면, 결론이 정당하다고 해도 그 재판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은 어쩌면 현대사회에 보내는 작가의 경고일 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수사와 재판도 미진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을 간과하면 아무리 훌륭한 소송제도를 갖추어도 당사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당사자가 거친 태도로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더욱 경청하는 것이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이 그들의 주장을 흘려듣지 않고 성실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언젠가는 그들도 법원과 재판의 지지자로 돌아설지 모른다.

소설을 읽으면서 필자는 작년에 진행하였던 절도사건을 머리에 떠올렸다. 피고인은 자신이 특별한 전과가 없음에도 범죄자로 몰렸다는 생각에 K처럼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여서, 흥분을 진정시키는 데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우여곡절 끝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보니, 피고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재판을 마치고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자도 모르게 "피고인의 주장을 여러모로 고려해 봤지만, 증거들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말았다.

판결은 판사의 당연한 업무인데 그때 왜 미안하다는 말이 튀어나왔을까. 어쨌든 피고인은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지만, 항소를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재판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를 접었던 것인지, 유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하고 결과에 승복한 것인지, 아니면 필자의 마지막 말이 위안이 되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그 때의 그 피고인을 떠올리면서, 앞으로도 당사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기 고

사랑의 달 '광주·전남 톡'과 함께

심 명 섭
전남대도서관 과장·수필가

지난 한달 내내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친 파도가 넘실거리는 동거차도와 팽목항 앞바다 소식에 안타까워하면서도 한 가닥 희망은 생환의 기적을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희망은 오지 않고 계절의 섭리에 따라 산과 들엔 철쭉과 아카시아 꽃이 만발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활짝 피어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쓰러졌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미안합니다.

항해 중에 재난을 만나게 되면 영국인들은 상대방의 귀에 대고 '버큰헤이드호를 기억하라'고 속삭인다고 합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인 영국 국민들은 휴가철이면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일상 생활화 되었지만, 지금도 잊지 않고 지켜 내려오는 '버큰헤이드호를 기억하라'는 이 전통은 1852년 2월 26일 새벽 2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 해군 수송선인 '버큰헤이드호'가 남아공 케이프타운 65㎞ 해상에서 암초에 부딪쳐 두 동강이 난 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에는 영국 해군 472명과 그들의 가족 16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탈수 있는 구명보트는 단 3대뿐, 1대에 60명 정원으로 180명이 탈수 있었습니다. 구명보트가 펼쳐지자 승선자들은 저마다 먼저 보트에 타겠다고 갑판이 혼잡스러워지자 누군가 둥둥둥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장인 시드니 세튼 대령은 전 해군 병사들을 갑판 위로 집합시켰습니다.

사령관의 명령에 병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 없이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세튼 대령이 외쳤습니다. '제군들! 지금은 그동안 우리를 위해 희생해 온 가족들을 우리가 지킬 때입니다. 어린이와 부녀자부터 탈출시키십시오!' 이렇게 해서 162명의 가족들은 모두 구명보트에 탔습니다. 다들 질서 있게 탈출한 후 마지막 세 번째 보트에는 계산상으로 18석의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구명보트에서 '아직 자리가 남아있으니 군인들도 타세요!'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때 한 장교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저 보트로 몰려가면 큰 혼란이 일어나고 구명보트가 뒤집힐 수 도 있습니다.' 세튼 함장은 병사들에게 한명도 구명보트에 다가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세튼 함장을 포함한 해군병사 472명은 두 동강이 난 채 파도에 휩쓸려 침몰한 배와 함께 모두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오후 늦게야 구조선이 도착해 나무판자 등 부서진 배 조각을 잡고 표류하고 있는 36명의 병사들을 구조했지만 결국 436명의 병사들은 배와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당시 목숨을 건진 존 우라이트 대위는 "모든 장병들이 세튼 함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이라는 것이 곧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인 죽음을 의미했지만 장병들의 의연한 태도는 훈련 받을 때의 수칙 그 이상의 것 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 영국을 지켜낸 힘이고 저력이며, Lady First! 라고 하면서 여성을 배려하는 신사의 나라 영국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책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책이라는 매체는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심리치료제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체가 대학시절에 어떻게 대학생활을 할 것인가로 방황하고 있을 때, 도서관에서 우연히 '의식과 관념'이라는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책을 통해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어학을 포기하고 철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해서 결국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가 된 것 입니다.

지금 우리 전남대학교에서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함께하는 한책 읽기 운동인 '2014 광주·전남이 읽고 톡하다'(http://gjtalk.jnu.ac.kr)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운동은 광주·전남 시도민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소통하며 담론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책 선정에서 토론, 한책 콘서트 등 프로그램 전반에 시·도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후보도서는 독서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책,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으로 인생을 안내하는 책, 그리고 한국전쟁 중 흥남 철수 때 목숨을 걸고 기적적으로 14,000명의 한국인을 구조한 선장 마리너스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책도 있습니다. 구구절절 금과 옥조 같은 문장으로 구성된 후보도서들의 공통된 줄거리는 지극히 약하기만 한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며 사랑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달, 감사의 달, 소중한 아이들을 잃은 가족 분들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사랑으로 기운을 내시고 사랑으로 슬픔도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社 說

지역 성장 새 모델이 된 완도해조류박람회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성공리에 끝났다. 지난 4월11일 시작돼 어제 폐막된 이번 박람회는 한 달 동안 50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옴으로써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행사 초기 인근 진도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내놓고 홍보를 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추도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내실 있는 운영으로 큰 성과를 올렸다. 또한 행사장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조용히 박람회장을 찾은 것이다.

이로써 완도군을 비롯한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해조류박람회는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없어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새로운 지역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행사 기간 동안 녹지 않는 해조류 아이스크림, 해조 국수 등은 관람객의 인기를 끌었다. 맨손 고기잡이와 갯벌 체험 등 부대행사와 국제회의도 돋보였다.

그러나 이번 박람회 개최의 가장 큰 성과는 막연히 알고 있던 해조류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린 데 있다. 일본은 완도 다시마·톳 등을 수입해 수십년 전부터 학교 어린이 의무급식을 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김종식 완도 군수는 국민 식탁에 매끼 해조류를 올릴 방법을 찾다가 박람회를 생각하게 됐고 결국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마칠 수 있었다.

박람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지역활성화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남의 비교우위인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널리 알린 것이다.

따라서 다른 시·군들도 완도해조류박람회 사례를 참고해 자기 지역 고유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의 참된 가치와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

'논란의 중심' 박승춘 보훈처장 사퇴해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처장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울 때 미국은 단결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정부와 대통령만 공격하는 것이 관례가 돼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에 따르면 박 처장은 지난 2일 '나라사랑' 전문강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무슨 큰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세월호 참사를 미국 9·11 테러와 비교해 우리 국민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다. 또한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을 비판한 것이지 '공격' 운운하는 건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박승춘 보훈처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다. 그는 또 지금까지 반민주적 처신과 역사인식을 드러내 비난의 대상이 돼 왔다. 이명박 정권 때인 2011년 2월 말 취임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유임된 그는 5공(共) 범법 인사를 위해 국립묘지 안장을 획책하고, 민주화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박 처장의 퇴행적 처신으로 볼 때 국가의 보훈을 담당하는 보훈처장으로서 함량 미달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문제 삼아 소모적 논쟁과 국론을 분열시킨 그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에 누를 끼치는 박 처장을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

박 정부가 진정 민주정부라면 반민주적 인사를 굳이 안고 갈 이유가 없다. 그건 우리 민주화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無 等 鼓

젊은 피

올해 초 개봉해 공전의 히트를 친 코미디 영화 '수상한 그녀'는 칠순 할머니가 스무살 꽃처녀로 변신해 빛나는 전성기를 보낸다는 이야기다. 주인공 오말순은 어느날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 하는 가족들의 계획을 듣고 거리를 방황하다 '청춘사진관'으로 들어간다.

그 곳에서 난생 처음으로 꽃단장을 하고, 영정사진을 찍고 나오는 길에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다. 오드리 헵번처럼 뽀얀 피부와 날렵한 몸매에서 주름진 칠순 할머니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오말순은 '오두리'로 이름을 바꾸고 젊은 시절 못누린 청춘을 마음껏 즐긴다. 타고난 노래 실력 덕에 가수로도 성공한다. 그러던 어느날 물놀이하다 다친 발등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노화되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꽃처녀로 변신하게 된 비밀을 알게된다. 젊은 피가 칠순 할머니를 스무살 처녀로 바꿔 놓은 것이다. 회춘의 비밀을 알게 된 오두리는 자신의 손자가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자 후회없이 수혈을 해주고 칠순 할머니로 되돌아 온다.

젊은 피가 회춘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은 동서고금에도 자주 등장한다. 그리스·로마시대에는 전사한 젊은 검투사의 피를 마셨고 15세기에는 건강한 사람의 피를 직접 몸 속에 주입하는 수혈방식이 등장했다. 교황 이노센티우스 8세는 생전에 소년 3명의 피를 수혈받았고 김일성은 한달에 한번씩 젊은 남성의 피를 받았다고 한다.

얼마 전 미국 의학자들이 젊은 피에서 회춘의 열쇠를 찾아냈다. UC샌프란시스코 연구진이 20대 쥐의 피를 뽑아 60대 쥐에 주기적으로 수혈했더니 기억력이 되살아났다. 60대 쥐 뇌의 해마(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에서 신경세포인 뉴런 연결이 다시 발달했다는 것이다.

하버대 연구진은 젊은 쥐의 피에서 일종의 회춘단백질을 찾아내 피 대신 단백질만을 쥐에게 투여했더니 악력이 세지고 운동능력이 향상됐으며 퇴화했던 후각도 민감해졌다고 밝혔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당들이 후보들을 속속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올 젊은 피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로 가뜩이나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무엇으로 투표장으로 불러 모을지 걱정이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